

尹 “페미니즘은 휴머니즘” 李 “국힘 정강에도 기본소득 있다”

3차 법정 TV토론 열띤 공방
증세·성인지 예산 놓고 대결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3차 법정 TV토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면대결을 펼쳤다. 이들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법정 TV토론에서 사회 분야 정책을 들고 서로를 공격했다. 대선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마지막 TV토론인 만큼 막판 표심 구애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첫 논쟁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따졌고, 윤 후보는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문제를 놓고도 격론은 이어졌다. 이 후보가 “300만원을 두고 매표행위라더니 국민의힘은 ‘우리가 3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한다”고 하자 윤 후보는 “(여당은) 제 공약(추경 50조원)을 모방하더니 결국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처리했다)”며 “아니 그걸 왜 예결위서 날치기하십니까”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꺼내 들며 윤 후보에 역공을 날렸다. 그는 “윤 후보님은 저출생 원인 이야기를 하다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냐”고 캐물었다. 여성 표심을 노리고 준비한 질문으로 보였다. 이에 윤 후보는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심 후보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다”며 비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윤 후보와 공방을 벌이면서 “규칙을 지키세요. 검사 출신 아닙니까”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선 이후 선물로 준 넥타이를 매고 나오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와 심 후보도 토론회 초반은 나란히 윤 후보 견제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후보는 초반부터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감정 싸움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한 여진 아니냐는 관전평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안 후보는 윤 후보와 같은, 감색 정장에 붉은 색 넥타이 차림으로 토론 무대에 올랐다. 심 후보는 증세 문제를 놓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중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가 수치를 들어 반박하자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곧바로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던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윤 후보는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심 후보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다”며 비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윤 후보와 공방을 벌이면서 “규칙을 지키세요. 검사 출신 아닙니까”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선 이후 선물로 준 넥타이를 매고 나오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와 심 후보도 토론회 초반은 나란히 윤 후보 견제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후보는 초반부터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감정 싸움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한 여진 아니냐는 관전평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안 후보는 윤 후보와 같은, 감색 정장에 붉은 색 넥타이 차림으로 토론 무대에 올랐다. 심 후보는 증세 문제를 놓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중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가 수치를 들어 반박하자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곧바로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던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광장에서 열린 ‘영등포를 일등포로, 이재명은 합시다’ 영등포 집중 유세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지원유세에 나선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이재명과 첫 공동 유세…“尹·安, 이익에 따른 야합”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익에 따른 야합”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영등포 유세에 처음으로 참석, “국민들은 이들이 어떤 자리를 나눠 갖고 권력을 분점하고, 나

라의 비전을 뒤로 제쳐놓고 어떤 자리에 어떤 권력을 나눌 거냐고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그제 이 후보와 공동선언을 하며 여러 이야기 나왔다. 국민이 묻는다. 이재명 김동연이 만들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은, 추구할 기득권 쉐어는 무엇이고, 정치교체는 어떻게 할지 묻는다”면서 “이 후보와 저는 가치와 비전을 갖고

공유하며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청년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치를 따르겠다, 이익을 따르겠다. 비전을 따르겠다, 야합을 따르겠다”며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겠다. 단순한 야합, 단일화가 아니라 기득권을 깨고 정치교체를 이루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대한민국의 새 미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동 유세에 나선 김 대표는 무대에서 이 후보에게 남색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997년 15대 대선 ‘DJP 연합’은 성공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실패

尹-安 단일화…역대 성적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과거 대선의 단일화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 1987년 13대 대선부터 지난 19대 대선까지 7차례 선거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4대 대선(1992년)을 빼고 매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됐으나 성공·실패 사례가 둘 다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단일화는 처음으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에 성사되면서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공표는 2005년 이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그 이후에는 선거 6일 전부터 금지됐다. 역대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의 이른바 ‘DJP 연합’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끌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는 같은 해 11월 3일 대선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 호남과 충청,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은 DJP 연합에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 당시 총재는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어 2002년 16대 대선도 단일화가 선거 주요 이슈가 됐다. 노무현 후보는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대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에 줄곧 약세였다. 하지만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로 D-24일 조사에서 단숨에 지

지를 43.5%로 첫 역전을 이뤘다. 이후 정 후보가 대선 하루 전날 ‘노무현 지지 철회’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깨졌지만, 정 후보의 지지 철회가 오히려 대대적인 진영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반대로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했음에도 패배한 사례다. 민주당·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11월 23일, 안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형식으로 후보가 단일화됐다. 그러나 한쪽의 포기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단일화는 충분한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양측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절반의 단일화’는 결국 안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18대 대선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단일화 이슈가 불발된 사례도 있다. 가령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등에 업고 독주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 또는 보수진영 내 국민의힘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나왔으나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987년 13대 대선 때도 군사독재를 마감하고 민주정권 탄생을 바라는 국민적 열원 속에 야권의 유력주자인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김종필 전 총리가 지합해 ‘1노 3김’ 구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양자대결 李 45.0%, 尹 45.9%…단일화 尹 47.4%, 李 41.5% “오차범위 내 접전·尹 우세” 엇갈려

엠브레인퍼블릭 단일화 전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양자대결 또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엇갈린 조사 결과가 3일 잇따라 나왔다. 한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단일화 이전이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후보는 45.9%, 이 후보는 45.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0.9%포인트다. 반면,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이 후보에 오차범위보다 큰 격차로 앞선다는 엇갈린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윤 후보 47.4%, 이 후보 41.5%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보다 큰 5.9%포인트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 후보 40.4%, 윤 후보 4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8.1%다. 안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야권 단일화시 이 후보로 옮겨간 비율이 31.2%로 윤 후보로 옮겨간 비율(29.2%)보다 2%포인트 많았다. 안 후보 지지층의 8.5%는 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일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중앙일보는 유선 임의전화 걸기(14.4%)와 휴대전화 가상번호(85.6%)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